

《基調講演 I》

モンsoon・アジア文化圏の中の東北アジアの位置

몬순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동북아시아의 위치

安部 清哉 ABE Seiya (学習院大学文学部)

HP—<http://page.freett.com/abeseiya/> seiya.abe@gakushuin.ac.jp

【要旨】

アジア・環太平洋の連続する広い領域に、Monsoon Asia という気候を背景にした文化的共有現象が認められる。その領域には、文化人類学的共通性のほか、言語においても、共通する現象や、同語源の蓋然性の高い単語の広域分布が認められる。

아시아・한태평양에 연속하는 넓은 지역에 몬순아시아라고 하는 기후를 배경으로 한 문화적 공유현상이 있다. 그 지역에는 문화인류학적인 공통성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나 같은 어원의 개연성이 높은 단어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また、M. A. 領域の東アジア地域では、気候の寒冷・温暖の格差が南北の文化を2分する文化境界がある。その南北境界線は、日本列島の南北方言分布境界線（気候線）と、朝鮮半島の方言分布境界線、及び、中国の「秦嶺—淮河線 Qing-Ling=Huai-river=Line」を結ぶ、一続きの文化境界線を形成している。

또, M. A. 영역의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기후의 한냉, 온난의 격차가 남북의 문화를 양분하는 문화 경계가 있다. 그 남북경계선은, 일본열도의 남북방언분포경계선(기후선)과, 한반도의 방언분포경계선, 및 중국의「秦嶺—淮河線 Qing-Ling=Huai-river=Line」을 연결하는, 일련의 문화경계선을 형성하고 있다.

Monsoon Asia Cultural Sphere の中において、この Monsoon Asia Central Climate Line 以北には、日本・韓国北朝鮮・中国それぞれの北半分が同じように含まれ、「東北アジア」的な共通の文化特徴をもつ領域と位置付けられる。また、いわゆる東（東北）アジア文化研究においては、国単位の相違の背後に隠れている文化特徴として、日本・韓国北朝鮮・中国の三国が共有しているこの「アジア北方文化」「アジア南方文化」という「東西横並びの共通文化特性」にも、注意を向けて研究していく必要がある。

Monsoon Asia Cultural Sphere 에, Monsoon Asia Central Climate Line 이북에는, 일본・북한・중국의 북쪽 반정도가 포함되고, 「동북아시아」적인 공통적인 문화특징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위 동(동북)아시아문화연구는, 국가 단위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 특징으로서, 일본・북한・중국의 3 국이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북방문화」「아시아 남방문화」라는 「동서로 뻗은 공통문화특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21 世紀のアジア文化研究は、この Monsoon Asia Cultural Sphere (MA文化圏) というアジア・環太平洋領域を視野に入れていく必要がある。

21 세기의 아시아문화연구는, 이 Monsoon Asia Cultural Sphere (MA 문화권) 이라는 아시아・한태평양지역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以下は朝鮮語（韓国語）・中国語・日本語の成立背景に関する現在の研究水準である。

다음은 조선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의 성립배경에 관한 현재의 연구수준이다.

◆MA文化圏に分布する古い共通言語現象が、これら3言語に共通する基層言語であった可能性がここに指摘できることになる。

M A 문화권에 분포하는 오래된 공통언어현상이, 이들 세 언어에 공통하는 기초언어였던 가능성을 여기서 지적할 수 있다.

◆朝鮮語(韓國語)には、非アルタイ語の基層言語があるという説がある(金 芳漢 1983 ソウル、1985 東京)。「原始韓半島語(基層)－アルタイ語(上層)」説

조선어(한국어)에는, 비알타이어의 기층언어가 있다고 하는 설이 있다(金 芳漢 1983 서울、1985 동경)。「原始韓半島語(基層)－알타이어(상층)」説

「韓國語はアルタイ語系でありながらも、非アルタイ語である基層言語、すなわち原始韓半島語の影響を受けている蓋然性が高いのである。／原始韓半島語はある種の高アジア語と関連のある蓋然性が高い。」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이면서도, 비알타이어인 기층언어, 즉 원시 한반도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연성이 높다. / 원시 한반도어는 어떤 옛날 아시아어와 관련이 있을 가연성이 높다.」

◆中国語は、その声調 tone が後代の発生であるという説がある(Matisoff James A. 1973, 1998)。Matisoff は、シナ・チベット語は、当初、子音と母音が整然と配列された、tone も pitch もない単一音調の単音節言語であったが、それが後代に語頭または語末の子音の音韻対立の消滅の代償として声調の対立が生じたとする。

중국어는, 그 성조 톤이 후대에 발생했다고 하는 설이 있다(Matisoff James A. 1973, 1998)。Matisoff 는, 지나·티벳어는, 당초 자음과 모음이 잘 배열되었고, 톤도 피치도 없는 단일음조의 단음절 언어였지만, 그것이 후대에 어두 또는 어말 자음의 음운 대립이 소멸한 대신에 성조의 대립이 생겼다고 한다.

「In the beginning was the Sino-Tibetan monosyllable, arrayed in its full consonantal and vocalic splendor. And the syllable was without tone and devoid of pitch. And monotony was on the face of the mora.……」

◆日本語の系統は、世界的研究水準において現在も未詳であるが、崎山理 1990『日本語の形成』以降「重層説」で検討するのが日本では主流になった。諸説多いので学説は省略に従うが、小中高校生用教材にさえ紹介できる段階になった下記レベルが、学会の有力な3説を‘象徴’しているので、引用しておく。

일본어의 계통은, 세계적 연구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상이지만, 崎山理 1990『日本語의 形成』 이후 「중층설」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주류가 되어 있다. 여러 설이 많으므로 학설은 생략하지만, 초중고의 교과서에까지 소개될 정도가 된 다음과 같은 설이, 학회의 유력한 3 설을 ‘상징’ 하고 있으므로 인용해 둔다.

① アルタイ語系説「(略)日本語の系統が現段階では、明確になってい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日本語とツングース系言語との系統関係を認めて、日本語をアルタイ語族に含める学説がある。」東京書籍 2001 改訂 5 版『図説世界史』

알타이어 계통설 「(생략)일본어의 계통이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어와 통구스계 언어와의 계통관계를 인정하여, 일본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시키는 학설이 있다.」東京書籍 2001 改訂 5 版『図説世界史』

② 北方語基層－南方語上層説「ユーラシア大陸内部に起源をもつ語に南方語や漢語が加わって日本語となった。」東京書籍 2002 改訂新版『図説日本史』

북방어 기층 - 남방어 상층설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 기원을 갖는 언어에 남방어와 한어가 더해져 일본어가 되었다」東京書籍 2002 改訂新版『図説日本史』

③南方語基層－北方語上層説「言葉のきまりは朝鮮・モンゴルなど大陸の北方とにている。体の位置部を表す言葉の発音は南方の台湾・フィリピン・オセアニアと似たところがある。この南北の影響を受けて、日本語はつくられていったらしい。」小学館 1999 『21世紀こども百科歴史館』

남방어 기층 - 북방어 상층설 「말의 규칙은 한국·몽골 등 대륙의 북방과 닮았다. 신체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의 발음은 남방의 대만·필리핀·오세아니아와 닮은 부분 있다. 이 남북의 영향을 받아, 일본어는 만들어진 것 같다.」小学館 1999 『21世紀어린이百科歴史館』

0.はじめに 서론

アジアの領域には、いくつかの共通した言語現象と、同語源の蓋然性が高い基礎語彙の分布が認められる。それは、特に河川名と類別詞に顕著である。その類別詞の世界的分布領域は、Monsoon Asia 気候（以下、MA気候）の領域、及び、Frobenius1938が指摘する東洋の類型的な神話分布の領域（全10枚）とほとんど重複している。それは、アジアから環太平洋に及んでいる。これらの分布の一致は、気候との関連性が濃厚であることから考えて、単なる偶然とは見なしにくい。MA気候という自然環境要因が、極めて長期に亘って、植物・動物、食物栽培・動植物加工や動植物移動ほか、文化・言語、言語を媒介とする神話分布の形成に影響してきた結果と考えられる。

아시아 지역에서는 몇 개의 공통된 언어현상과, 같은 어원일 가연성이 높은 기초어휘가 분포되어 있다. 그것은, 특히 하천명과 분류사에 현저하다. 분류사의 세계적인 분포지역은 몬순 아시아 기후(이하, MA기후) 영역, 그리고 Frobenius1938가 지적한 동양의 유별적 신화분포 지역(모두 10장)과 거의 중복된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환태평양에 걸쳐져 있다. 이들 분포의 일치, 기후와 관련성이 높은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MA기후라는 자연환경요인이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식물·동물, 식물재배·동식물가공과 동식물 이동 이외에, 문화·언어, 언어를 매개로 한 신화분포 형성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発表者、日本語の歴史を研究する過程で、日本語方言の歴史的解釈と河川名研究からこの文化領域の問題を指摘するに至った。ここでは次の4点について取り上げる。

발표자는 일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방언의 역사적 해석과 하천명 연구에서 이 문화영역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다음 4가지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다.

- ① MA領域における河川名(ナイ・サワ・ヌマ3語)の分布状況
MA 영역에 있어서 하천명(내·천·늪 3語)의 분포상황
- ② MA領域の文化的共通現象とそれらのアジア・環太平洋の範囲(「MA文化圏」) MA 영역의 문화적 공통현상과 그들의 아시아·환태평양의 범위(「MA문화권」)
- ③ 東アジアを南北に2分する文化的境界線(「MA中央気候境界線」)
동아시아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문화적 경계선(「MA중앙기후 경계선」)
- ④ MAにおける③の境界線以北が「東北アジア」的共通性を有すること
MA에 있어서 ③의 경계선 이북이「동북아시아」적 공통성을 갖는다는 것
(詳しくは、安部 2003. 7, 安部 2004. 12, ABE2003. 7ほか、参考文献に挙げた拙論参照。)
(자세한 것은 安部 2003. 7, 安部 2004. 12, ABE2003. 7 외에, 참고문헌에 실린 논문 참조)

1. 河川名と類別詞の分布領域とモンスーン・アジア

하천명과 분류사의 분포영역과 몬순 아시아

アジアには、これまでも同語源の単語の広い分布が指摘されてきたが、古い言語分布を研究するためには、河川地形名を調査することが有効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きている。(参照、W. B. Schostakowitsch 1926, H. Krahe 1954, 安部清哉 2001. 8、安部 2003. 7)

아시아에는, 지금까지도 같은 어원의 단어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오래된 언어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천 지형명을 조사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지적되었다. (참조, W. B. Schostakowitsch 1926, H. Krahe 1954, 安部清哉 2001. 8、安部 2003. 7)

アジアの河川名(水源地形名)の分布を、日本語のナイ(図1)、ナワ(図2)、ヌマ(図3)から調査していくと、東アジアだけでなく、東北アジア、南アジア、太平洋に、同源と推定可能な単語分布が確認できる。河川名の分布は、他の言語分布現象や気候区域との相関性が極めて高いことが指摘できる(安部 2001. 11)。そこで、特に同源性が高くかつ広い範囲で分布していたナイの分布領域と重複する気候区分と言語現象を探索したところ、モンスーン・アジア Monsoon Asia と呼ばれる気候領域、及び、類別詞(classifier)の分布とほぼ重複していることが見出せた。これら河川名、類別詞、気候の分布領域が重なるということは、歴史的背景として、何らかの文化的共通性があることを示唆する。この領域の、より詳細な研究で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아시아의 하천명(수원지형명)의 분포를, 일본어 나이(그림1)、나와(그림2)、누마(그림3)에서 조사해 보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에, 같은 어원이라고 추정되는 단어가 분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천명의 분포는, 다른 언어분포 현상이 기후구역과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安部 2001. 11). 이 점에서 특히, 같은 어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는 나이 의 분포지역과 중복하는 기후구분, 그리고 언어현상을 조사해 보았더니, 몬순 아시아라고 불리는 기후영역, 및 분류사(classifier)의 분포와 거의 겹쳐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하천명, 분류사, 기후의 분포영역이 겹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영역의,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몬스ーン·アジアという文化領域(Asia & Pacific rim) 몬순 아시아라는 문화영역

1 で見たモンスーン・アジア気候の領域のうち、ユーラシア大陸側は、気候学において比較的明確な境界線が示されている。そこで、安部の日本語方言での研究方法と同様に、このMA領域に一樣に分布する文化現象、ないし、その領域の外側の世界とは性格を異にする文化現象を、文化人類学的現象全般に亘って探索した。すると、以下の①から⑭のような、多くの特徴的現象を見出すことができた。

1 에서 본 몬순 아시아 기후 지역 가운데, 유라시아대륙쪽은, 기후학에 있어서 비교적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그래서, 아베의 일본어방언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 MA 영역에 동일하게 분포하는 문화현상, 내지는 그 지역의 외부세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현상을, 문화 인류학적현상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다음 ①에서 ⑭와 같은, 많은 특징적 현상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これらの分布のユーラシア大陸内部の境界線は、必ずしも完全に一致するものではない。特に東北アジアになると、その分布が見られなくなる現象も少なくない(◆注1)。しかし、大局的に見れば、MAに共通する特徴的文化現象、あるいは、MAの境界を特徴付けている現象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注1、東北部は、気候の関係で現象が希薄になり、Cline 地理的漸移勾配をなすと解釈される。)

이들 분포의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경계선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그 분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도 적지 않다(◆注1).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MA 에 공통하는 특징적 문화현상, 혹은 MA 의 경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注1、동북부는, 기후 관계로 현상이 희박해지고, Cline 地理的漸移 勾配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モンスーン・アジア文化圏の文化人類学的諸特徴》(分布図は安部HP参照)

문순 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인류학적 제 현상 (분포도는 아베 홈페이지 참조)

- ① Distribution of Classifiers by Aikhenvald 2000, [「類別詞」の分布領域]
Distribution of Classifiers by Aikhenvald 2000, [「분류사」 분포지역]
- ② Monsoon Asia Area by Yoshino, Masatoshi 1999, [気候区域モンスーン・アジア気候区]
Monsoon Asia Area by Yoshino, Masatoshi 1999, [기후구역 문순아시아 기후구]
- ③ Region of the precipitation over 100mm (in July) in Asia & Pacific rim
[アジア・環太平洋における夏季(7月)の降水量100ミリ以上の領域]
[아시아·환태평양에 있어서 하기(7월) 강수량 100 밀리 이상 지역]
- ④ Distribution of Chopping Tools in Paleolithic era by R. Lewin 2002,
[旧石器時代のChopping Tools(打製石核石器)の分布領域]
[구석기 시대의 Chopping Tools(타제석핵석기) 분포지역]
- ⑤ Distribution of Dioscorea (yam) by Nakao, Sasuke 1966.
[ヤマイモ(温帯種・熱帯種)の分布領域]
[Dioscorea (yam) (温帯種・熱帯種) 분포지역]
- ⑤ Distribution of Taro by Hotta, Minoru 1974. [サトイモ科の分布領域]
Distribution of Taro by Hotta, Minoru 1974. [토란과 분포지역]
- ⑥ Distribution of liquor fermented by aspergillus & by saliva
by Nakao, Sasuke 1967.
[酒類分類における麹発酵酒+唾液発酵酒の分布領域]
[주류분류에 있어서 麹발酵酒+唾液발酵酒 분포지역]
- ⑦ Historical Distribution of the Tiger by IUCN 1996, [トラの本来的生息地域領域]
Historical Distribution of the Tiger by IUCN 1996, [호랑이의 본래 서식지 영역]
- ⑧ Floral zone in Asia by Kitamura, Shiro 1957 [アジアの植物区系]
Floral zone in Asia by Kitamura, Shiro 1957 [아시아의 식물구계]
- ⑨ Area & Division of Farming in China by F. Spencer 1954, [中国の農耕領域]
Area & Division of Farming in China by F. Spencer 1954, [중국의 농경영역]
- ⑩ Urhaimat & Diffusion Area of Austronesian by Katayama, Kazumichi 1996,
[オーストロネシア語の源郷と拡散地域]
[Austronesian의 Diffusion Area 과 확산지역]
- ⑪ Distribution of mice(Castaneus & its Hbb-d type) by Moriwaki & Yonekawa 1993,
[ハツカネズミ(キャストネウス型およびHbb-d型)の世界的分布領域]
[mice (Castaneus 型 및 Hbb-d 型) 세계적 분포지역]
- ⑫ Distribution of Typological Mythology of East by Frobenius 1938,
[東洋における神話の類型的分布領域 全10図(フロベニウス 1938)]
[東洋에 있어서 신화의 유형적 분포영역 全10장 (Frobenius 1938)]
- ⑬ Distribution of Money Cowrie(shellfish, Family Cypraeidae) by Shirai, Shohei 1997,
[MA海域におけるタカラガイ類の分布領域]
[MA 지역에 있어서 Money Cowrie 류의 분포지역]

これらのうち、その領域が比較的明確でかつ広域に互っている、類別詞、MA気候、そして神話分布は、ほとんどその範囲が重なっている。それらは、アジアから環太平洋に及んでいることがわかる。これらの多くの分布範囲がほぼ重複しているのは偶然とは見なし難く、相互に何らかの影響関係があったものと推定される。

이 들 가운데, 그 영역이 비교적 명확하고 또한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분류사, M A 기후, 그리고 신화분포는, 거의 그 범위가 중복된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한태평양에 걸쳐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분포범위가 거의 겹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서로 어떤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これらの現象の中で、植物・動物ほか、多くの現象に影響を及ぼし得るのは「気候」と考えられる。それゆえ、これらの共通現象を極めて長期間に亘って形成してきたのは、モンスーン気候という自然環境にその第1要因があると結論付けられる。世界的に見ても、このように多くの文化的特性が重なり合う広域の領域は、ほかに見出せない。

이 현상 가운데, 식물·동물 이외에, 대부분의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기후」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런 공통 현상을 극히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해 온 것은, 몬순기후라는 자연환경이 그 첫번째 요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런 많은 문화적 특징이 중복되는 넓은 지역은, 찾아볼 수가 없다.

よって、これらの文化的共通性に着目し、この領域を仮に「モンスーン・アジア文化圏」と名付けることにしたい。

따라서, 이런 문화적 공통성에 착안하여, 이 영역을 임시로 「몬순아시아문화권」이라고 명명해 둔다.

2. モンスーン・アジアを区画する「M. A. 中央気候線 Central Climate line」

몬순아시아를 구분하는 「M. A. 중앙 기후선 Central Climate line」

(中国の「秦嶺－淮河線 Qing-Ling Huai River line」の延長線)

(중국의「秦嶺－淮河線 Qing-Ling Huai River line」연장선)

MAの中でも、東アジアの日本列島・朝鮮（韓）半島・中国大陸には、気候の境界線がある。また、気候の境界の影響で、文化的現象においても、分布の境界が見られる。（安部 1999.9 以降参照。図 A B C D 参照）

MA가운데서도, 동아시아의 일본열도·한반도·중국대륙에는, 기후의 경계선이 있다. 또한, 기후 경계의 영향으로, 문화적 현상에 있어서도, 분포의 경계가 보여진다. (安部 1999.9 이후 참조. 도표 A B C D 참조)

その境界線は、中国では既に漢の時代から文化境界として知られており、「秦嶺－淮河線」という名称を持つ。中国の歴代国家形成にも影響してき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安部 2003.3 では、その境界線も含め、中国大陸・日本列島・朝鮮半島の文化の境界線を一続きの共通の背景をもつものとして、初めて把握した（「モンスーン・アジア中央気候線」と名付けた）。

그 경계선은,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 시대부터 문화경계로 알려져 있고, 「秦嶺－淮河線」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중국의 역대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베 2003.3 에서는, 그 경계선을 포함하여, 중국대륙·일본열도·한반도의 문화 경계선을 연속된 공통의 배경을 갖는 것으로서, 처음으로 분류했다 (「몬순 아시아 중앙 기후선」이라고 명명했다) .

その境界線は、旧石器時代の「細石刃文化」の拡散ルートにも認められる（図 A）。それゆえ、MA 気候の範囲の中にあっても、古くから文化にも影響を及ぼした境界線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今後は、MA 文化圏形成過程における、この境界線の影響についても研究が必要と考える。

그 경계선은, 구석기시대의 「細石刃文化」의 확산 루트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MA 기후의 경계안에 있어서도, 옛날부터 문화에도 영향을 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M A 문화권 형성과정에 있어서, 이 경계선의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3. 「東北アジア」の領域—日本・韓国北朝鮮・中国に共通する北方・南方 「동북아시아」의 영역—일본・북한・중국에 공통하는 북방・남방

MA文化圏における東アジアは、2で示した「中央気候線」(図A)によって、南北2つに区分できる。それは、日本・韓国北朝鮮・中国をほぼ南北に2分している。この中央気候線の南北で、東アジアの諸文化は大きく異なる。より寒冷型の文化特徴が濃厚になる「北方アジア地域」と、東南アジアとの文化的共通性が強く、より温暖型の文化特徴が濃厚な「南方アジア地域」である。

MA文化圏에 있어서 동아시아는, 2에서 언급한 「중앙기후선」(圖A)에 의해서, 남북 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일본・북한・중국을 거의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 중앙기후선의 남북으로, 동아시아의 제문화는 크게 다르다. 보다 한냉형의 문화특징이 농후하게 되는 「북방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와의 문화적 공통성이 많고, 보다 온난형의 문화특징이 농후한 「남방 아시아지역」이다.

日本・韓国北朝鮮・中国という国家的相違の背後には、それぞれの北部・南部で共通するこの東西横並びの文化的共通性があり、その点にも目を向けていく必要がある。

일본・북한・중국이라는 국가적 차이의 배후에는, 각각의 북부・남부에 공통하는 동서로 횡적인 문화적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점에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仮に、文化的共通性の高い地域をくくるという観点から、「東北アジア」という言い方を使用するとするならば、このMA文化圏における中央気候線以北の地域を、ひとまとまりの「東北アジア文化圏」と呼ぶのがふさわしい、と言えようか。

만약, 문화적 공통성이 많은 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MA문화권의 중앙기후선 이북지역을, 한 덩어리의 「동북아시아문화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 「モンスーン・アジア」文化圏研究とモンゴロイド文化史の研究 「몬순 아시아」문화권 연구와 몽고로이드 문화사 연구

上記のMA文化圏の領域は、人類学的に見ると、モンゴロイドが、インド西方からアジア・太平洋周辺に拡散していったルート・範囲とほぼ重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앞서 언급한 MA 문화권 영역은, 인류학적으로 보면, 몽고로이드가, 인도 서쪽에서 아시아・태평양 주변으로 확산해 간 루트・영역과 거의 겹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今後、21世紀の研究として、人類学的研究としても、文化学・文化人類学研究としても、また、言語学としても、このMA文化圏におけるあらゆる歴史的研究が必要と考える。

앞으로 21 세기의 연구로서, 인류학적 연구로서도, 문화학・문화인류학 연구로서도, 또한 언어학으로서도, 이 MA문화권의 모든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MA文化圏のような、特殊な領域の指摘は、世界的にもまだまったく新しいものであり、今後批判的検討が必要であることはもちろんである。ただ、人類史的にも、極めて貴重な研究対象であり、危機言語の調査などの貴重な研究データ収集を急ぐことを含め、今度、この領域を対象とした「モンスーン・アジア文化学会」のような国際的学際的研究学会組織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と思われる。

MA 문화권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 대한 지적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거의 새로운 것이며, 앞으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인류사적으로 보아도, 극히

귀중한 연구대상이고, 위기언어의 조사 등 귀중한 연구 데이터 수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이 영역을 대상으로 한「문순아시아문화학회」와 같은 국제적 학제적 연구학회의 조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 [参考文献] (抄録. 関連文献や地図は拙論や <http://page.freett.com/abeseiya/> 参照)

Hans Krahe (1954) 『SPRACHE UND VORZEIT』

W. B. Schostakowitsch (1926) 「Die historisch-ethnographische Bedeutung der Benennungen sibirischer Flu "sse」, UJ6-1·2 (Ugarische Jahrbu "cher) (表紙印刷数字は 1927)

鏡味明克 (1977) 「地名の起源」『岩波講座日本語 12』岩波書店

鏡味完二 (1958) 『日本地名学』東洋書林原書房

鈴木秀夫 (1987) 「民族の移動と言語の分布」『言語』16-7 と氏の先行論文

宋 敏 (1999) 『韓国語と日本語のあいだ』草風館

都 守熙 (1977) 『百濟語研究』亜細亜文化社

朴 炳采 (1968) 「古代三国の地名語彙攷 (副題略)」『白山学報』5

李 基文 (1975) 『韓国語の歴史』大修館書店

李 芳漢 (1983) 『韓国語の系統』三一書房

ABE, Seiya (2003. 7. 29) Dialectical/climatic features and distribution of terms for watercourses in Asian languages : the case of Japanese, Korean, and Chinese,

‘Papers of X V I I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in CD-ROM, Prague, CIL, 2003,

あべせいや (1997) 『日本語のルーツを探ったら』アリス館

あべせいや (2004. 12) 「言語地理学と日本語とアジア・環太平洋言語史」『日本語学』23-15

安部清哉 (2001. 8) 「東アジア (日本語・韓国語・中国語) の河川地形名の偏在と方言分布・気候との相関」『韓国日本學會 (KAJA) 第 63 回學術大會 Proceedings』

安部清哉 (2001. 11) 「東アジア (日本語・韓国語・中国語) の河川地形名の偏在と方言分布・気候との相関 配布地図・補論」『玉藻』37

安部清哉 (2002. 5) 「方言地理学から見た日本語の成立——第 3 の言語史モデル理論としての “Stratification Model”——」『方言地理学の課題』明治書院

安部清哉編 (2003. 3) 『日本語の方言分布境界線 (関越線・気候線) による方言の重層性に関する基礎的研究』平成 13・14 年度科学研究費成果報告書、私家版

安部清哉 (2003. 7) 「関東における日本語方言境界線から見た河川地形名の重層とその背景」『国語学』54-3

安部清哉 (2004. 7) 「地名と日本語——河川地形名の言語空間」『国文学解釈と鑑賞』69-7

安部清哉 (2005. 5) 「日本語・朝鮮語の境界とモンスーン・アジア文化圏——水源地形名 numa<*nub (沼・泥) の 「b-m」 音韻対応——」大韓日語日文学会『日語日文学』26 号

◆【付記】本稿は、平成 15—17 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 (C) (2) 「言語成層論モデルによる日本語とモンスーン・アジア地域の言語史に関する基礎的研究」(課題番号 15520298、代表者: 安部) 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もある。

본 연구는, 平成 15—17 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 (C) (2) 「言語成層論モデルによる日本語とモンスーン・アジア地域の言語史に関する基礎的研究」(課題番号 15520298、代表者: 安部) 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이기도 한다.